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일조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6년 10월 18일(화요일) / 장소 : 기숙사 715호							
참석자 명단	학번	20160000	이름	박00	학번		이름	
	학번	20160001	이름	전00	학번		이름	
	학번	20160002	이름	최00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책 선정이유 (박00)</p> <p>고등학생 때 ‘아름다운 아이’란 책을 먼저 읽었다. 이전 읽었던 학교 폭력소설과는 다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시점으로 서술한 소설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심비우스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 책을 조원들과 읽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줄리안 이야기’로 정했다. 내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아이’ 소설 속 줄리안은 결국 오기(어거스트)를 괴롭히던 아이였을 뿐이다. 이런 가해자라는 친구 입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하니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 같아서 이 책으로 결정한 것이다.</p> <p>소설에 대한 의견 나눔</p> <p>이 소설의 스토리는 굉장히 뻘한 스토리(클리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었다. 어느 시각에서 소설을 읽어도 줄리안과 어거스트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이다. 줄리안이 직접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에게 도움이 없이 방관자에 가까웠고 결국 피해자를 놀리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가해자라고 생각한다.</p> <p>소설의 문체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설은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책의 단점이자 장점과 같은 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과정과 결말이 책을 읽으면서 보인다는 점이 아쉬웠다.</p> <p>조원들과 소설 속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때 가장 화제에 올랐던 것은 ‘왜 줄리안이 어거스트를 싫어했는가?’에 대한 이유였다. 조원 세 명 모두 의견은 달랐지만 같은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한다.</p> <p>최00 : 본능적 거부감이라고 생각한다. 오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줄리안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다. 그러나 오기가 전학 오면서 줄리안의 인기가 식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더 싫어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p> <p>박00 : 줄리안은 친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받아드릴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p> <p>전00 : 줄리안은 인기가 많았던 만큼 넓은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기가 전학 오면서 자신의 인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이는 곧 오기가 자신의 영역 침범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감정에서 오기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 오기를 더 싫어하게 된 거라 생각한다.</p> <p>1. 소설 속 줄리안의 행동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p> <p>박00 : 질문에 대답한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는 줄리안의 배경을</p>							

보았을 때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반응하는 줄리안의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줄리안이 오기에 대해서 ‘나는 저런 성격과는 맞지 않아’와 같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애초에 오기라는 친구를 싫어하는 감정에서 말했기 때문에 줄리안이 계속 인기가 있었다라면 오기를 왕따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00 : 타당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줄리안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핑계로 다른 누군가를 건드린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줄리안이 많은 인기를 얻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위치를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 이에 불안감을 느껴 한 행동이라 치기에는 (오기에 대한 줄리안의 질투가 계속되서 학교 폭력으로 불릴 정도의 사건이 되었다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든다.

최00 :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줄리안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기를 괴롭힌 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2. 내가 주인공 곁에 있는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떤 인물이고 싶은가? 그 인물이 되어 어떻게 행동했겠는가?

박00 : 이 소설을 읽으며 불편했던 점은 교사들을 비롯해 부모들 등 어른들의 선택이다. 사건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나 교장 등 모두 해결하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다.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과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내가 등장인물이었다면 줄리안의 부모이고 싶다. 나는 줄리안을 무조건 감싸주지도 혼내지도 않을 것이다. 부모님이 화를 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줄리안에게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전00 : 나는 줄리안의 부모 역할을 하고 싶다. 줄리안에게 잘못된 행동을 알려주기에는 소설 속 부모님이 선불리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 전체적인 사건 배경을 먼저 그런 다음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다음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타일러 잘못을 인정하게 하거나 무조건 사과를 하게 만드는 행동은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에 도움이 될 뿐, 아이에게 어떠한 교훈도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00 : 소설을 읽으며 과연 아이에게 이렇게 억압을 줌으로써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 가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교장선생님이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전체적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너가 때렸으니 네가 잘못된거야. 사과해!라고 압박을 주는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일 뿐, 아이에게 잘못을 알려주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은 아니다. 내가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이렇게 아이에게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3. 학교를 옮기는 선택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을까?

박00 :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줄리안은 나이가 어린 만큼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학기도 다 끝내지 못한 채 학교를 옮겼다는 점이다. 복합적으로는 좋지 않은 마무리였다고 본다.

전00 : 학교를 옮겼다는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난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물론 나중에 따로 돌아와 사과를 하지만) 다른 환경으로 가는 것을 ‘도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않을까?

최00 :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아있었다라면 그 편견이 계속 쌓였을 것이다.

4. 이 상황을 지켜봐온 친구들(절교한 친구들까지) 시간이 흘러 줄리안을 어떻게 기억할까?

박00 : 그 친구들은 자신이 잘못 행동했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자신의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줄리안에 대한 나쁜 감정이 희석되었거나, 그 땐 그랬을 수도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

전00 :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더 넓은 생각의 폭이 생길 것이다. 사건 당시에는 친구들이 줄리안을 못된 아이라고만 기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줄리안이 그렇게 행동했었을 이유까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줄리안을 두고 무조건 나쁜 아이였어라는 과거의 기억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는 자기반성이 더 중심이 될 것 같다.

최00 : 단지 한 친구를 몰아세우던 (친구를 싫어하던) 나쁜 애라고 기억할 것 같다.

총평

첫 번째 만남과 달리 이번 소설은 장편소설이었다. 표지나 소설 속 글자 크기를 보고 청소년보다는 아이들이 읽는 책에 더 가깝지 않을까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의견도 잠시 소설을 전부 읽고 나서 이 책이 청소년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은 다른 학교폭력 소설과는 다르게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 모두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가해자, 피해자라고 정의하기에는 문제가 작은 것 같다.) 평소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읽어 온 소설과 달리 가해자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물론 조원들 모두가 가해자의 행동이 타당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단지 아, 저 상황에서 가해자는 이렇게 느꼈구나. 라는 생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책을 가치관이 형성된 청소년에게 권하고 싶다. 가치관이 없는 친구들이 읽기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 때문이다.

인상 깊은 문단

박00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금 우편으로 제 금언을 보내 드렸어요. ‘때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괴물 석상이 나온 엽서예요. 제가 금언을 쓴 이유는 9월부터 새 학교로 옮기기 때문이에요. 저는 비처 사립학교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좋았어요. 특히 선생님 수업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이유가 선생님을 싫어해서라고 받아드리진 말아주세요. (중략) 그래도 선생님 수업은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 소설 전체를 읽는 동안 대학생이 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들의 순수함보다는 이기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자신의 친구를 배신하는 등 잔인한 행동도 보였다. (줄리안이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오기에게 가는 것과 같은 행동) 이 문장을 꼽은 이유는 아이의 순수함이 물씬 느껴졌기 때문이다. 줄리안의 아이다운 면이 제일 깊게 나타났기에 인상 깊었다.

전00

엄마가 대신 대답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어요!”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멈춰 세웠다. 주차장 관리인은 우리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내리지 않았다. 아빠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학교가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주 정확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렇지만 줄리안,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 학교 폭력에 자신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생각한 것을 넘어서 아이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쪽지 사건까지 모두 파악한 부분이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 부모님의 대처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체 사건의 상황을 알게 됨이 인상깊게 남은 부분이었던 것 같다.

최00

줄스! 쥬 에 으 세흐부 컴 어 샌드위치 위 포마쥬! (Tu as un cerveau comme un sandwich au fromage!)

- 이 대사는 줄리안의 엄마 아빠가 아들의 잘못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다.

2016 년 10 월 18 일

참가자대표 : 박00